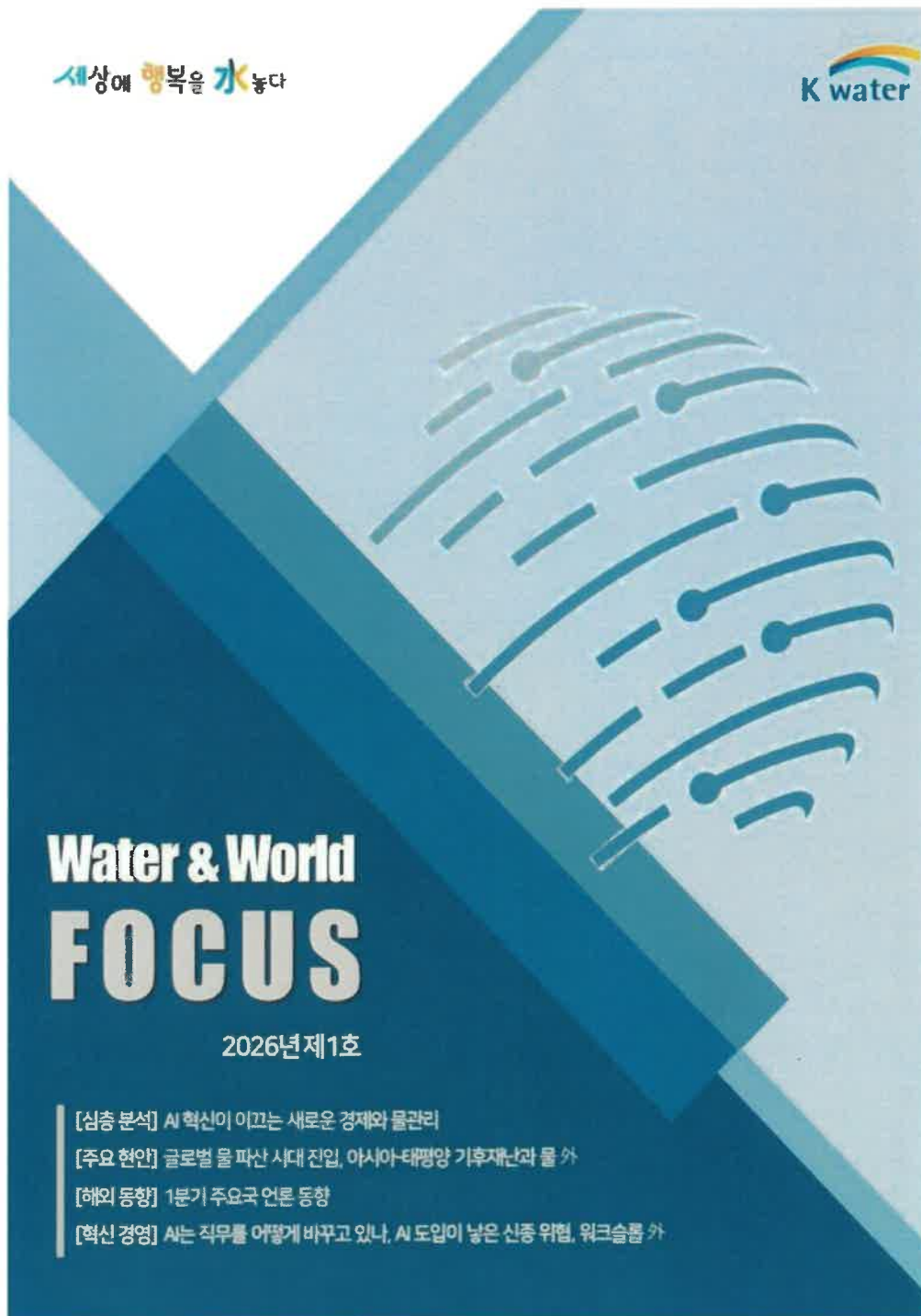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 물 이슈 공개...‘Water&World Focus’ 창간

✎ 정성진 기자 ✎ 승인 2026.05.05 14:10

격월 발간 심층 분석지로 대국민 소통 강화
UN·세계은행 등 국제 보고서 15종 분석
기후위기·AI 시대 물 정책 방향 제시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이 세계 물 동향과 주요 쟁점을 분석해 발간한 전문 간행물 'Water&World Focus(워터 앤 월드 포커스)' 창간호 표지. K-water 제공

한국수자원공사가 전 세계 물 이슈를 국민에게 공개하며 소통을 확대한다.

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은 4일 전문 간행물 'Water&World Focus'를 통해 글로벌 물 동향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 간행물은 기존 국내 중심 자료에서 벗어나 국제 정책과 산업 흐름을 분석하는 심층 보고서다. 기후위기 대응과 물 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해 새롭게 기획됐다.

창간호에는 유엔(UN),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 보고서 15종이 담겼다. 물 부족 심화와 '물 파산' 가능성,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난 위험, AI 산업 확산에 따른 물 수요 변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또 베트남, 필리핀 등 13개국 언론 동향도 함께 수록해 글로벌 흐름을 폭넓게 반영했다.

간행물은 격월 발간된다. 해외 물 산업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과 함께 일반 국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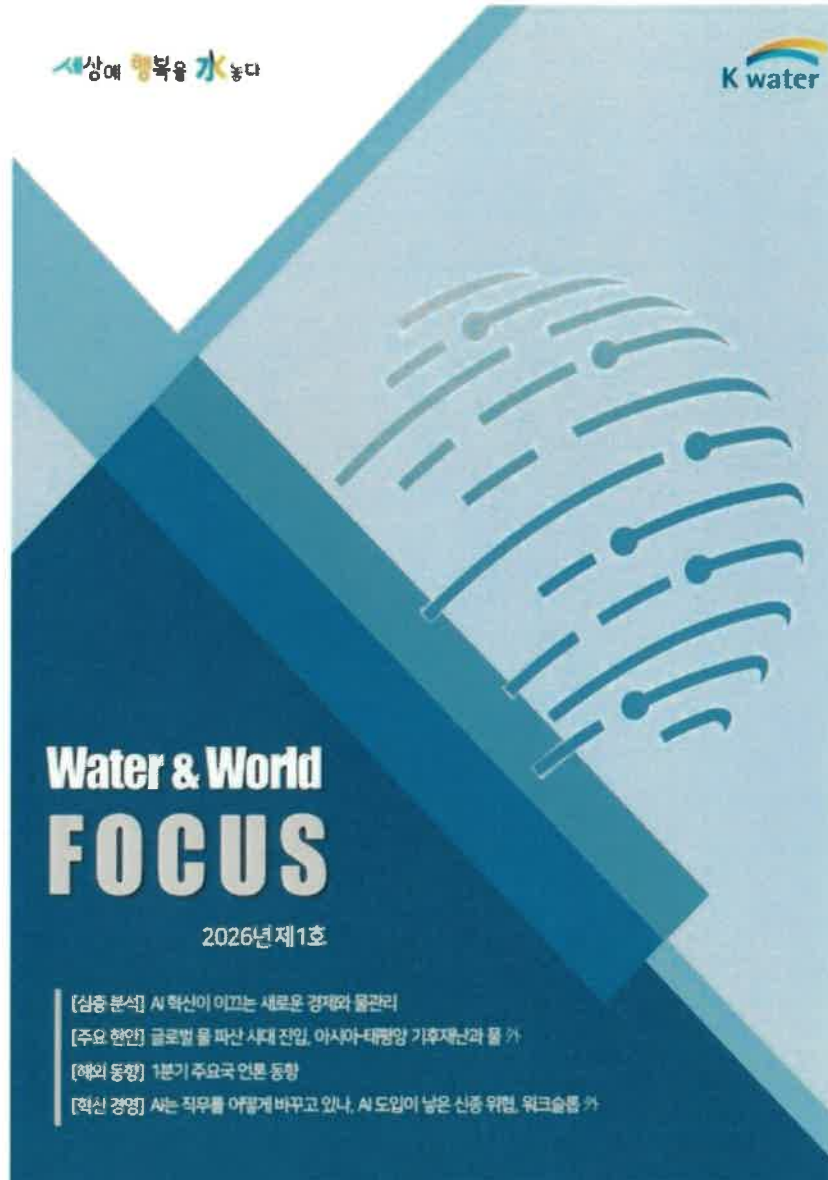
자료는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누리집(www.kwater.or.kr/kiwe)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김병기 원장은 "물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성진 기자** jsj1234@ccdn.co.kr

[포토뉴스]수자원공사, 'Water&World Focus' 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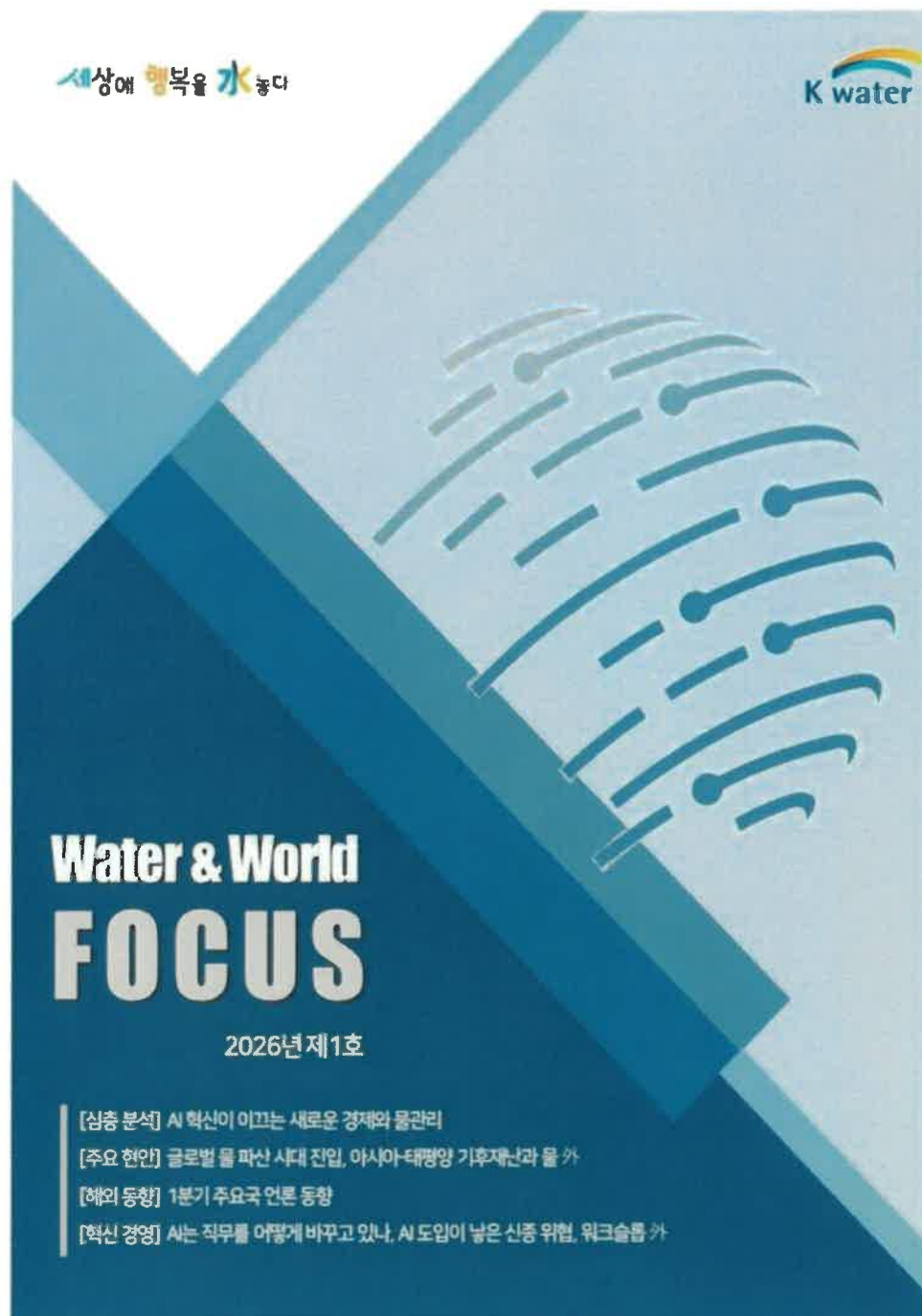
8 박원식 기자 | 승인 2026.05.05 14:36



한국수자원공사(K-water) K-water연구원은 세계 물 동향과 주요 쟁점을 분석한 전문 간행물 'Water&World Focus'을 창간했다고 밝혔다. 'Water&World Focus'는 기존 국내 정책-기술 중심의 간행물 체계를 개편하여 기후 위기 심화에 따른 물의 중요성과 국제 현안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신설된 심층 분석지다. 수자원공사는 해외 주요국의 최신 정책과 산업 동향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여 국가 차원의 물관리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자 이를 대국민 정보 제공 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식 누리집에 게재된 창간호는 유엔(UN),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주요 보고서 15종을 심층 분석했다.(사진=K-water 제공)

수자원공사 'Water&World Focus' 창간..."물 동향 분석"

등록 2026.05.04 15:57:46



[대전=뉴시스]수자원공사 발행한 'Water&World Focus' 창간호. 2026. 05. 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세계 물 동향과 주요 쟁점을 분석한 전문 간행물 'Water&World Focus(워터
앤 월드 포커스)'가 창간했다.

4일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에 따르면 'Water&World Focus'는 기존 국내 정책·기술 중심의 간행물
체계를 개편해 기후 위기 심화에 따른 물의 중요성과 국제 현안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창간한 심층
분석지다.

수자원공사는 해외 주요국의 최신 정책과 산업 동향을 국민에게 공유해 국가 차원의 물관리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대국민 정보 제공 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창간호는 유엔(UN),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주요 보고서 15종을 심층
분석했다. 주요 주제로는 UN의 경고에 따른 '물 파산'시대의 도래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난 위기 심화,
인공지능(AI) 혁신에 따른 신산업과 물 수요 변화, 물 기반 시설 투자의 새로운 흐름 등 현재 전 세계적으
로 파급효과가 큰 현안들을 다루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등 13개국의 주요 언론 동향도 함께 수록해 시의성을 높였다.

간행물은 두 달에 한 번씩 정기 발간한다.

김병기 K-water연구원장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와 AI 산업 발전 등으로 인해 '물'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
하는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Water&World Focus'를 통해 객관적인 세계 물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국민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국내 물 산업의 대응 역량을 높ی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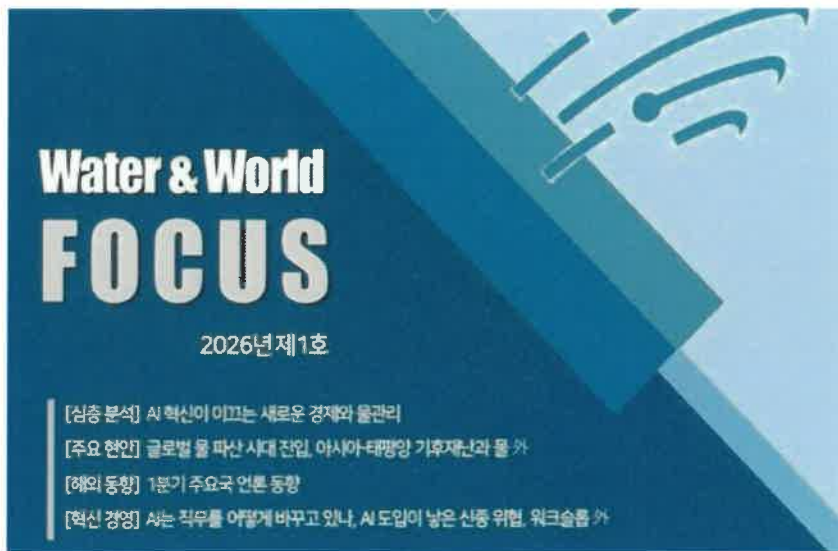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산업 성장으로 '물 수요 급증'...국제적 가뭄 위험

A 천동환 기자 @ 승인 2026.05.05 15:56

수자원공사, GWI·세계은행 보고서 분석
"새로운 경제에 대응한 물관리 방안 필요"



수자원공사 발행 'Water&World Focus' 2026년 제1호 표지. [자료=수자원공사]

GW이와 세계은행은 AI 산업 성장이 물 사용량을 급격히 늘려 전 세계적인 물 부족 위험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경제에 대응한 물관리 방안 필요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5일 한국수자원공사 발행 'Water&World Focus' 창간호에 따르면 국제 물산업 분석·컨설팅 기업 'GW이(Global Water Intelligence)'와 국제 금융기관 '세계은행(World Bank)'은 각각 올해 1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AI(인공지능) 혁명과 물 수요의 관계를 다뤘다.

GW이는 지구 환경이 가뭄과 홍수가 극단적으로 교차하는 기후재찍(Climate Whiplash)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최근 20년간 전 세계 담수량이 추세적 감소세를 보이며 물 부족이 일상화됐다고 분석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런 분석에 대해 기후 위기에 따라 극단적인 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통적 물관리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AI 초호황과 함께 부상하는 새로운 경제에 대응한 물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AI 산업 성장 과정에서 기존 물 공급 인프라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새로운 물관리 방안이 요구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 분	전통산업(제조, 철강, 화학 등)	AI 산업(데이터센터 등)
입 지	용수 확보에 유리한 대규모 하천, 호수 등 주변 입지	물과 탈동조화(Decoupling) : 전력, 통신망을 우선시하는 입지

전통산업과 AI 산업의 주요 시설 물 이용 여건 경향. [자료=수자원공사, Water&World Focus 2026년 제1호]

세계은행은 전력 생산과 반도체 칩 제조 등을 포괄한 'AI 물 발자국' 개념을 제시했다. 전력 생산을 위한 냉각수가 간접 소비 형태로 AI 물 발자국의 80% 이상 차지한다고 봤다. 이런 현상을 포함해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물 수요 급증 가능성이 지속해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GW이는 고성능 칩 생산을 위한 미세 공정 확대가 세척 단계 증가로 이어지고 초순수 수요를 늘린다고 분석했다. 초순수 1㎥(세제곱미터)를 생산하려면 최대 4㎥ 원수 투입이 필요한 만큼 물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고 봤다.

수자원공사는 이런 분석에 대해 AI 산업 성장이 단순한 데이터센터 냉각을 넘어 다방면 물 수요 급증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센터 다수가 물 스트레스가 높은 지역에 있다. 특히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34%는 연간 물 취수량이 가용 수자원량을 초과하는 물 부족 지역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가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적인 이유로 AI 기업에 원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용수를 공급해 잘못된 가격 신호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은행은 이런 현상을 "AI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센터는 에너지에 굶주렸을 뿐 아니라 심각한 갈증을 겪고 있다"라고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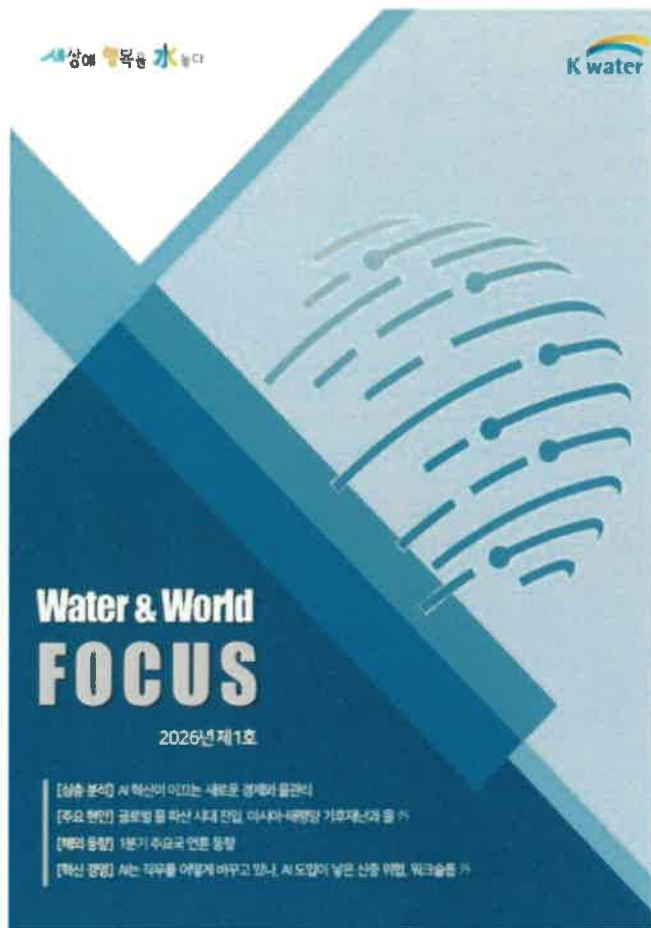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천동환 기자

수자원공사, 물 동향 분석 간행물 'Water&World Focus' 발간 확대

기사입력2026-05-04 17:10:21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 물 관련 이슈를 분석한 간행물을 통해 대국민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K-water연구원이 발간하는 'Water&World Focus'를 활용해 국제 물 동향과 주요 현안을 국민에게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간행물은 기존 정책·기술 중심 자료에서 범위를 넓혀 기후 변화와 글로벌 물 관리 이슈를 다루는 분석지로 개편됐다.

창간호에는 유엔,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 15종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물 부족 심화와 재난 위험,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물 수요 변화, 물 인프라 투자 동향 등이다. 또한 베트남과 필리핀 등 13개국 언론 동향도 포함됐다.

간행물은 격월로 발간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통해 해외 물 산업 동향과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물 관리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는 K-water연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병기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은 “물 관리가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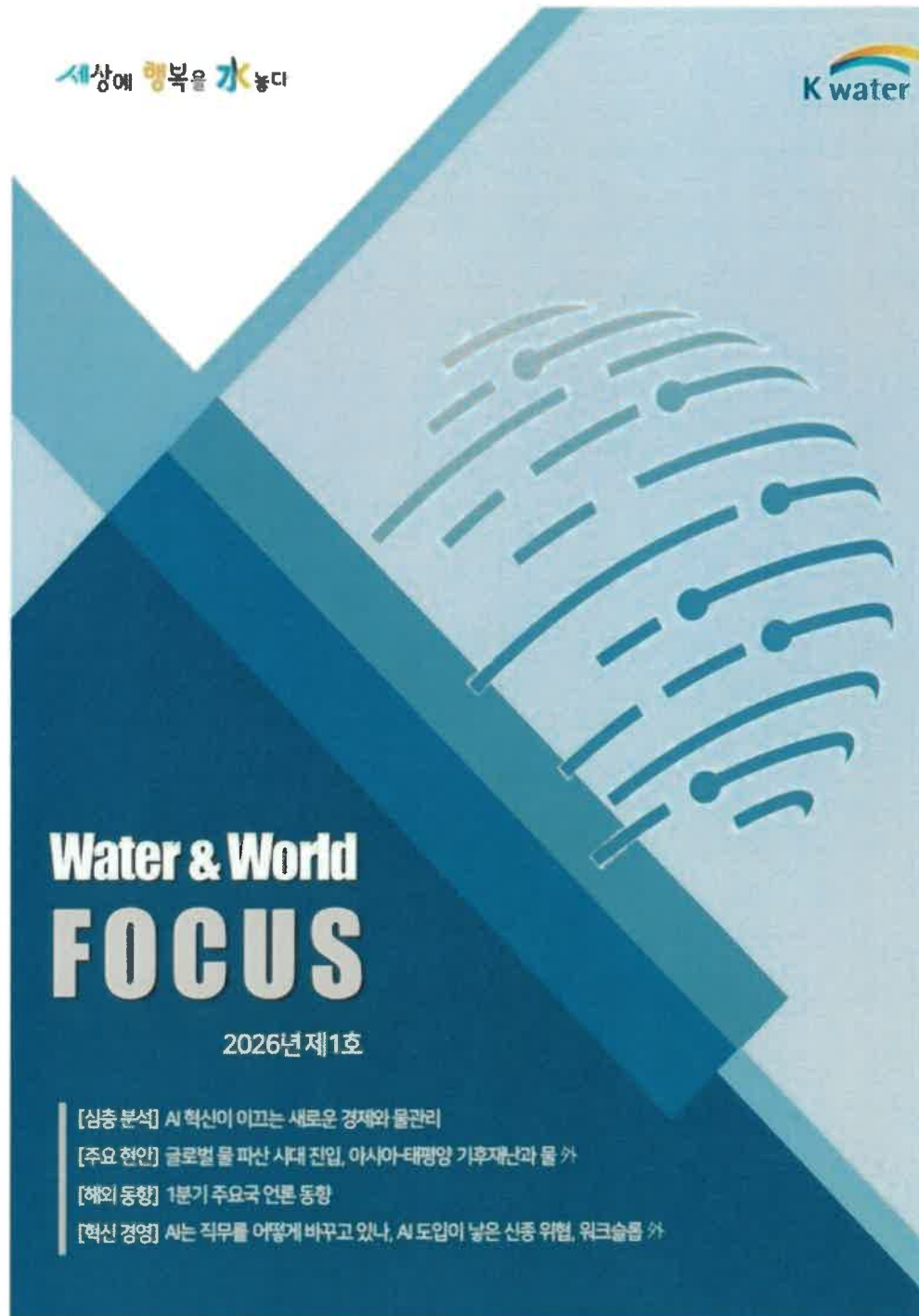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저작권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수자원공사, 전 세계 물 의제 대국민 공유 나선다

⌕ 노태하 기자 | ⓒ 승인 2026.05.04 17:47

전문 간행물 'Water & World Focus'로 소통 확대
해외 혁신 사례·기후 위기 대응전략 등 시사점 제공



[사진] Water&World Focus 2026년 1호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연구원은 세계 물 동향과 주요 쟁점을 분석한 전문 간행물 'Water&World Focus(워터 앤 월드 포커스)'의 수록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본격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Water&World Focus’는 기존 국내 정책·기술 중심의 간행물 체계를 개편해 기후 위기 심화에 따른 물의 중요성과 국제 현안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신설된 심층 분석지다.

공식 누리집에 게재된 창간호는 유엔(UN),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주요 보고서 15종을 심층 분석했다. 주요 주제는 △UN의 경고에 따른 ‘물 파산’ 시대의 도래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난 위기 심화 △인공지능(AI) 혁신에 따른 신산업과 물 수요 변화 △물 기반 시설 투자의 새로운 흐름 등 현재 전 세계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현안들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베트남, 필리핀 등 13개국의 주요 언론 동향도 함께 수록해 시의성을 높였다.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은 본 간행물을 두 달에 한 번씩 정기 발간한다. 해외 물 시장 진출을 위한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은 물론 이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가공하여 누구나 세계 물 현안의 시사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매개체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병기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장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와 AI 산업 발전 등으로 인해 ‘물’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Water&World Focus’를 통해 객관적인 세계 물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국민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국내 물 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노태하 기자 nth@enewstoday.co.kr

K-water, 글로벌 물 전문 간행물 발간...대국민 소통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6.05.04 14:20 수정 : 2026.05.04 14:20

기후위기·AI발 물 수요 변화 분석

글로벌 동향 짚어 대응 방향 제시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Water & World FOCUS

2026년 제1호

[심층 분석] AI 혁신이 이끄는 새로운 경제와 물관리

[주요 현안] 글로벌 물 파산 시대 진입, 아시아-태평양 기후재난과 물 외

[해외 동향] 1분기 주요국 언론 동향

[혁신 경영] 시는 직무를 어떻게 바꾸고 있나, AI 도입이 낳은 신종 위험, 워크슬롭 외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워터 앤 월드 포커스(Water&World Focus)' 표지 이
미지. K-water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세계 물 관련 주요 이슈를 정리한 전문 간행물을 발간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K-water연구원은 글로벌 물 동향과 핵심 쟁점을 분석한 '워터 앤 월드 포커스 (Water&World Focus)'를 선보이고 관련 내용을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간행물은 기존 국내 정책·기술 중심 자료에서 벗어나 기후 위기 심화에 따른 물의 중요성과 국제 현안을 종합적으로 짚기 위해 신설된 심층 분석지다. 해외 주요국 정책과 산업 흐름을 공유해 국가 물관리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창간호에는 유엔(UN),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 보고서 15종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 '물 파산' 시대 도래와 아시아·태평양 재난 위험 확대 △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물 수요 변화 △ 물 기반 시설 투자 흐름 등이다. 베트남·필리핀 등 13개국의 주요 언론 동향도 함께 실어 시의성을 높였다.

K-water연구원은 해당 간행물을 두 달마다 발간할 계획이다. 해외 물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가공해 지속적인 소통 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창간호와 향후 발간 자료는 K-water연구원 공식 누리집에서 무료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다.

김병기 K-water연구원은 "기후 위기와 AI 산업 확대로 물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글로벌 물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국내 물 산업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취소